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5.(화) 09:00	배포 일시	2022. 11. 15.(화) 08:30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 정대순 (042-481-5063)
		담당자	서기관 황상동 (042-481-8659)

특허청, 아세안(ASEAN) 8개국 특허청과 청장회담 개최

- 필리핀, 브루나이, 말레이시아와 심화협력, 포괄협력
양해각서(MOU)를 체결기로 합의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제5회 한-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개최를 계기로 11월 15일(화)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(서울 강남구)에서 브루나이, 필리핀 등 아세안(ASEAN) 주요 8개국 특허청*과 청장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○ 특허청은 이번 8개국과의 청장회담을 통해,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* 등 심사 협력, 지식재산 분야 인력양성,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보화 분야 컨설팅 등 분야별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,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맞는 향후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.

* PPH(Patent Prosecution Highway) 두 나라에 공통으로 특허를 신청한 신청인이 하나의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
□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브루나이)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,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브루나이 지식재산청 심사관 등 내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- (필리핀) 지식재산 인력양성, 지식재산 사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지식재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
- (말레이시아)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,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양해각서(MOU)를 향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하고, 중소기업 대상 지원정책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.
- (태국)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기 위한 실행계획(Action Plan)을 연내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하고, △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등 심사 협력 추진 △지식재산 사업화 및 가치평가 △인공지능(AI) 기반의 특허 및 이미지 검색 시스템 관련 정보교환 등을 동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한다.
- (캄보디아) 양국의 국가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,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코이카(KOICA) 글로벌 연수사업에 대해 논의한다.
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그간 한국 특허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포괄협력, 특허심사,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개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,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상대인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”면서
- “한국 특허청은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양자 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전파하는 한편,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